

책임자

디지털혁신팀  
황인창 팀장(3775-9043)

작성자

황인창 연구위원(3775-9043)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총 3매

## 보험연구원,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CEO Report 발간

###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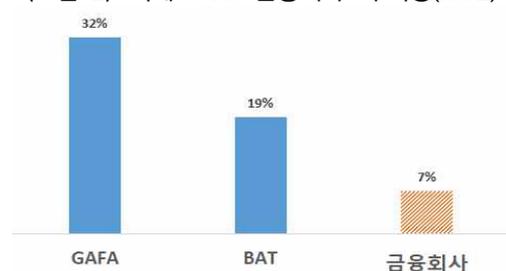
-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디지털혁신팀 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현상을 평가하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 최근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함
  -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짐

〈그림 1〉 빅테크 vs. 금융회사: 시가총액



주: 2021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Bloomberg

〈그림 2〉 빅테크 vs. 금융회사: 수익성(ROE)



주: 2018년 기준, 금융회사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이 대상임  
자료: FSB(2019), "Big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 빅테크가 비금융 주력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하여 주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임

-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변화, 빅테크의 높은 데이터 접근성과 기술적 우위 등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하고 있음
- 금융업 진출에 있어 빅테크의 경쟁력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의 상호보완을 통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나옴

〈표 1〉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지역	회사명	주력사업	결제	대출	은행(예금)	클라우드 펀딩	자산관리	보험
선진국	애플	하드웨어 제조	○	×	×	×	×	×
	아마존	전자상거래	○	○	×	○	×	○
	구글	검색엔진	○	×	○ <sup>1)</sup>	×	×	×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	×	×	×	×	×
	NTT 도코모	통신사업	○	○	○	○	×	×
	라쿠텐	전자상거래	○	×	○	×	○	○
신흥국	텐센트	게임·메시징	○	○	○	○	○	○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	전자상거래	○	○	○	○	○	○
	바이두 (두샤오만파이낸셜)	검색엔진	○	○	○	○	○	○
	메르카도 리브레	전자상거래	○	○	×	×	○	×
	카카오 <sup>2)</sup>	메시징	○	○	○	○	○	○ <sup>1)</sup>

주: 1) 2021년 내 서비스 제공 예정임

2) 저자가 내용을 추가함

자료: Crisanto, J C, J Ehrentraud and M Fabian(2021),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FSI Briefs, No. 12

□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임

-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협쟁(協爭, Co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노출됨

□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은 보험회사에 고객이탈 및 시장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접점 강화, 기술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금융 관련 인력 훈련 및 양성, 양질의 고객데이터 확보 등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표 2〉 보험회사와 빅테크의 SWOT 분석

분석 항목	보험회사	빅테크
강점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시장지배력</li> <li>• 장기상품에 대한 노하우</li> <li>• 보험 데이터(예, 보험금) 접근성</li> <li>• 위험관리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고객기반</li> <li>• 접근성 및 편의성</li> <li>• 비금융 데이터 접근성 및 신기술 활용도</li> <li>• 자금조달력</li> </ul>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한 수익구조</li> <li>• 시스템 및 인력의 경직성</li> <li>• 비금융 데이터 접근성 및 신기술 활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과 단기적 관계 형성</li> <li>• 위험관리능력</li> <li>• 보험 데이터(예, 보험금) 접근성</li> </ul>
기회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 발생</li> <li>• 기술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유연성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의 부상</li> <li>• 비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li> </ul>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진입</li> <li>• 기존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독점 및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도입</li> <li>• 유사 사업모형을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li> </ul>

□ 정책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체계, 시장경쟁,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빅테크가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제차익이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심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를 모니터링하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 CEO Report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 끝.